

# 전남형 '수산업·해상풍력발전' 공존모델 만든다

## 영국·덴마크·노르웨이 등 선진지 사례조사 활용 해역별 맞춤 개발...지속가능 수산업 기틀 마련

전남도가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해의 선진지 사례를 거울삼아 전남형 공존모델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28일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

존모델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를 지난 20일까지 11일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전남 해역에 맞는 공존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조사에는 시·군, 목포대, 군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영국과 덴마크 해의 선진 해상풍력단지 현장, 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모델 개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서남해역의 어업활동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공존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 목포대, 군산대 등과 함께 지난 4월 국가연구개발(R&D) 공모 사업에

도전에 해양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공존 모델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 국비 19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에 이번 사례 조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해역 별로 공존모델 유형을 구분해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서해안형은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로 개발한다. 남해안형은 양식·관광업 병행 모델, 자원 조성·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

존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신모델을 개발해 전남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별 가능한 어구·어법, 풍력단지 내 양식장 간격 등 안전 기준을 마련,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사례 조사 결과를 어업인, 해상풍력발전 관련 업체 등과 공유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에 대한 국

제세미나를 열어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표준 모델을 정립, 어업인이 수산업을 지속 영위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수산업, 에너지, 관광업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남도 대회가 지난 26일 오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농업 미래, 농촌의 꿈, 한국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계호 국회의원, 이숙원 한여농중앙회장, 김향숙 한여농전남도연합회장, 서동욱 도의회 의장, 강종만 영광군수 등 주요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한여농 전남연합회 "농업·농촌 변화 주도"

### 영광서 단결·화합 한마음 대회...금지사에 감사패

한국여성농업인전남연합회가 지난 26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 대회를 열어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서동욱 도의회 의장, 이계호 국회의원, 도의원, 단제장, 농업인 단체 회원,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의 미래, 농촌의 꿈, 한국여성농업인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식전행사, 우수농업인 표창, 감사패 전달, 여성농업인 선언문 발표로 이뤄졌다.  
시상식에선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지사 표창에 나누시연합회 운영

자서 등 12명, 농축산식품부장관상에 영광연합회 고영순씨 등 2명을, 중앙연합회장상에 장성군연합회 김명금씨 등 총 24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한여농 전남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과 전남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록 지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인건비, 농자재값 인상, 쌀값 하락으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여성농업인의 행복이 곧 농도 전남의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행복한 농촌, 돈 잘 버는 농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여타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조성되면 전남 농업 발전과 농정 분야 총괄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쌀값 20만원 이상 회복 등에도 적극 나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전남 농업이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터 운영

광주시는 28일 "추석을 앞두고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터 '희망을 구입하고 행복을 담아가는 신나는 장터'를 29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장터는 지역 복지일자리 생산품 홍보는 물론, 복지일자리로 운영 중인 사회 재기를 꿈꾸는 자활근로자, 노년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립을 꿈꾸는 지적 장애인 등이 근로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상품은 ▲수제침, 짬뽕·쿠기, 커피·차, 누룽지, 어묵, 참·들기름 등 수제 먹거리 ▲천연비누, 세제, 수세미, 도마 등 생필품 ▲파우치, 키링, 손가방, 지갑, 벨트 등 공예품이다. /박성강기자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방지 시설물 설치

### 오영순 남구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지역 공중화장실 등에 각종 범죄·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광주 남구의회는 28일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남구는 이용자 편익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순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 등 설치를 통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남구 소재 공중화장실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 민주당 목포지역위 '조선 인력난 해소' 토론회

### 오늘 오전 10시 도의회 초의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전남 조선업 지속 발전을 위한 대불공단 인력난 해소방안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원자재가 폭등과 인력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의 '전남 조선해양 인력 수급 현황

및 대책'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수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협의회장,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총무부회장, 김탁 전남기재자협동조합 전무, 조두연 목포대 조선공학과 교수, 최정훈 도의원, 김미선 전남도 기반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에는 전남도,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현대삼호사내협력사협의회, 대한조선협력사협의회, 산·학·연 관계자, 언론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표=정해선기자

##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준비 순항

### 市·동구·관광재단 등 '일상이 축제인 10월 광주' 논의

광주시가 오는 10월 광주를 뜨겁게 달굴 세계 최대 버스킹 경연대회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와 동구, 광주관광재단, 광주관광협회 등이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버스커즈 월드컵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홍보전략, 관광상품 기획, 총장축제와 연계 방법, '일상이 축제인 10월 광주'를 만들기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버스커즈 월드컵이 글로벌 경연대회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버스킹 오디션 프로그램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는 시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총장축제'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45개 국가 539개 팀(국내 388개 팀, 해외 151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예선 1·2차전을 거쳐 최종 25개 국가 120개 팀(국내 70개 팀, 해외 50개 팀)이 본선에 오른다.  
본선진출 팀들은 10월8일부터 16일까지 치열한 토너먼트 방식의 음악적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10월17일 '추억의 총장축제' 주무대인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최종 결선에서는 16개 팀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광주 시민들에게 전 세계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는 최종 우승자에게 트로피와 상금 1억원이 주어지는 등 총 상금 1억9천400만원을 시상하는 글로벌 대형 음악 경연대회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총장축제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버스커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손해보험협회**

**돈돈돈 지킴이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